**불꽃으로부터의 탄생**

먼 옛날, 약 100만 년 전~1만 년 전에 반복된 화산 활동이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의 경관을 형성했습니다. 100만 년의 시간을 지나며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에 육지가 생겨나고 새로운 산들이 탄생했으며, 강이 막혀 시카리베쓰호가 탄생했습니다.

도카치 평야의 형성

도카치 평야의 형성은 약 1,300만 년 전에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의 충돌에 의해 히다카 산맥이 탄생했고, 현재의 도카치 지역에 구조분지가 생겨났습니다. 과거 분지는 현재보다 훨씬 더 내륙으로 뻗어있었으며, 태평양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분지에는 토사가 퇴적되었습니다. 약 100만 년 전, 시카오이 북부에 있던 거대 화산의 분화를 시작으로 화산 분화 및 도카치강과 도카치강 지류의 하천 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토사가 쌓였고, 그렇게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에 서서히 습지대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도카치 평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산들의 등장

시카리베쓰호 주변 산들은 시카리베쓰 화산군의 일부이며, 구기(旧期) 화산군과 신기(新期) 화산군이라는 각기 다른 시대에 생긴 화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기(旧期) 화산군의 활동은 현생 인류가 진화한 무렵인 약 30만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그 후 20만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기타페토우토루산(1,400m)과 미나미페토우토루산(1,348m)입니다. 모두 성층화산이며, 점성이 낮고 흐름이 빠른 용암의 반복적인 분출로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산들보다 젊은 산들은 6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이 산들은 종상화산이며, 점성이 있는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고 분출구 주위에 쌓이면서 산이 형성되었습니다. 호수 주변의 많은 종상화산에는 비슷한 크기의 바위가 많이 쌓여있는 사면이 있습니다. 이는 ‘암괴사면’이라 불리는데 동결과 융해에 의한 풍화와 마찰에 의한 파쇄가 결합되어 생긴 것입니다. 4개의 종상화산 중 가장 높은 것은 니시누푸카우시누푸리산(1,254m)과 히가시누푸카우시누푸리산(1,252m)이며, 그 밖에 하쿠운산(1,187m)과 덴보산(1,173m)이 있습니다.

호수의 탄생

시카리베쓰의 종상화산은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상화산의 형성에 의해 강의 흐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강이 서서히 막힌 결과, ‘언색호’인 시카리베쓰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발고도 804m의 산 위에 있는 시카리베쓰호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어 천공의 호수라고 불리며, 투명도는 19.5m로 일본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면적은 3.4km²에 이르며, 호수 둘레는 13.8km입니다. 하지만 원래 호수는 더 커서 북쪽과 서쪽으로 더욱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은 일시적으로 막혀 있었으나 물은 머지않아 다른 출구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호수의 남서부입니다. 시카리베쓰 지역의 지형은 이 지질공원의 경관을 만든 강력한 힘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